



산불로 큰 피해를 입은 강원 속초시 장천마을 일대 산림이 폐허로 남아 있다.



/연합뉴스 강원 일대 산불 나흘째인 7일 오후 강원도 동해시 망상오토캠핑장의 건물들이 불에 타 흔적만 남아 있는 모습. /동해시청

‘잿빛공포’ 강원 이재민에 꿈과 용기를...기업도 힘 보탠다

롯데유통 칸막이 텐트·구호키트
이마트 즉석밥·라면 등 생필품
이랜드 이불·속옷·슬리퍼 등
롯데 구호체계 가동, 4억 추가
CJ그룹 소방관·봉사자들에 간식

유통업체가 강원도 산불 피해지역을 돕기 위해 발벗고 나섰다. 이재민들을 위한 생필품을 제공하고, 피해복구 작업에 참여중인 소방관과 자원봉사자들을 위한 식음료도 제공하는 등 구호 물품 지원이 이어지고 있다.

◆유통업계 긴급구호 협력체계 가동

7일 업계에 따르면 롯데그룹과 이랜드그룹, 대형마트 이마트와 홈플러스 등 유통업계는 지역 물류센터와 점포를 중심으로 강원도 산불 피해 지역에 즉각 긴급 구호물품을 지원했다.

롯데유통사업부문은 4일 고성군 속초 지역 산불로 인한 이재민 4000여명이 발생함에 따라 지난 해 4월 행정안전부와 전국재해구호협회와 체결한 재난 긴급 구호 민관협력 업무협약(MOU)에 따라 긴급구호 협력체계를 즉시 가동했다.

우선, 재해·재난 발생을 대비해 사전에 제작해둔 이재민 대피소용 칸막이 텐트(3~4인용) 180여 개와 담요, 속옷



7일 오후 강원 고성군 토성면 천진초등학교에서 국민건강보험 약국 의료봉사원들이 산불로 집을 잃은 이재민들과 자원봉사자들에게 약을 처방하고 있다. /연합뉴스

등이 담긴 생필품 구호 키트 400세트를 실시간으로 전달했다. 또 롯데유통사업부문의 국내 최대 유통망을 활용해 피해 지역과 가장 가까운 세븐일레븐 강원도 물류센터에서 생수, 컵라면, 즉석밥, 통조림, 물티슈 등 2000명 분의 식료품을 즉시 수송했다.

롯데유통사업부문 이원준 부회장은 “힘든 시간을 겪고 있을 고성군 속초 지역 주민들이 하루라도 빨리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길 기대한다”며, “특히 연세가 많으신 어르신들과 어린이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마트는 강원 소재 점포인 속초·강

릉·동해점을 중심으로 이재민들에게 즉석밥, 라면, 물, 화장지 등 최소 2000만원 이상의 생필품을 긴급 공수했다. 편의점인 이마트24 역시 피해 입은 이재민 분들과 화재 진화에 앞장선 소방관 지원을 위해 5일 새벽 긴급 물류 차량을 편성했다. 라면, 치약칫솔세트, 화장지, 초콜릿 등 1000만원 상당의 구호 물품은 당일 오전 전달했다. 홈플러스는 강릉점과 삼척점에서 고성군과 속초시, 강릉시, 동해시 관할 대피소에 생수와 라면 등 구호물품을 지원했다.

이랜드재단과 이랜드 호텔레저BU 켄싱턴호텔앤리조트 사업부도 긴급 구

호물품을 전달했다. 긴급 구호물품은 이불 250채, 속옷 300벌, 슬리퍼 250개, 트레이닝복 세트 250벌 등 총 5000만원 상당의 이재민 생필품으로 구성됐다.

◆식품업계, 구호 성금 추가 지원

식품업계도 구호 활동에 나섰다. 롯데그룹을 비롯해 CJ그룹, SPC그룹, 농심, 삼양식품, 본아이에프 등이 산불 피해를 입은 강원도 고성군·속초시 주민들을 위해 힘을 모았다.

롯데는 이날 강원도 산불 피해지역의 복구와 이재민 지원을 위해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4억원을 추가로 기탁했다. 롯데는 유통사업부문이 2018년 행정안전부, 전국재해구호협회와 체결한 업무협약에 따라 연간 6억원 규모의 재해 긴급구호자금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산불이 발생한 지난 4일부터 즉시 피해지역에 대한 구호체계를 가동하고 있다. 특히 이번 강원도 산불 피해의 심각성을 고려하여 그룹 차원에서 4억원의 성금을 추가로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CJ그룹도 구호활동에 뛰어 들었다. 이재민과 피해복구 작업에 참여 중인 소방관, 자원봉사자들을 위해 CJ제일제당이 햇반컵면, 맥스봉, 뿌띠첼 워터젤리 등 간편식과 간식류를, CJ푸드빌

이 푸레쥬르 빵 1만5000개를 공급한다. 화재 발생 후 재난 현장에 인접한 CJ헬로 영동방송을 비롯해 CJ그룹 임직원 30여명이 현장에 긴급 투입됐다. CJ헬로는 긴급 재난방송 체제로 전환해 전국에 실시간으로 화재 상황을 전달했으며, 향후 피해 고객을 위한 요금 감면 및 구호성금 모금방송도 계획하고 있다.

SPC그룹도 강원도 고성군 지역에 긴급 구호물품을 지원했다. 파리바게뜨 빵 3000개와 SPC삼립 생수 3000개를 성남시 자원봉사센터(고성군과 자매결연을 맺은 도시)를 통해 전달했으며, 구호물품은 산불로 인해 대피소에 머물고 있는 이재민들과 피해 복구 작업에 참여하는 소방관, 자원봉사자 등에게 지원할 계획이다.

농심은 신라면, 육개장 사발면 등 컵라면 제품 2만개를 전국재해구호협회를 통해 속초시청에 전달할 예정이다. 삼양식품도 라면과 우유 등을 지원한다. 본아이에프는 가정간편식 즉 3000개를 긴급 공수해 즉시 전달하기로 했다. 아이쿱생협과 한국사회적경제씨앗재단도 강원도 일대에 긴급구호물자를 전달하기로 했다. 컵라면과 생수 각각 1만개씩을 긴급 지원하기로 했다.

/신원선·박인욱 기자 tree6834@metroseoul.co.kr

차량점검·수리, 봉사자 파견... 재계, 피해복구 온힘

삼성 계열사 성금 20억·구호키트
현대차 세탁구호차량, 수리비 등
SK그룹 복구현장용 LTE무전기 등
LG그룹 이동기지국 설치 지원

재계가 산불로 큰 피해를 입은 강원도에 따뜻한 손길을 내밀었다. 그룹별로 장기를 살려 재난 극복에 동참한다.

7일 업계에 따르면 국내 기업들은 주말 동안 잇따라 강원도 산불 피해 지원책을 발표했다. 성금과 함께 물품 등 지원도 함께 내놨다.

삼성그룹은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은 성금인 20억원으로 주목받았다. 삼성물산과 삼성생명, 삼성화재 등 계열사들이 모은 돈이다.

구호키트 500세트도 발빠르게 강원도로 보내진 상태다. 필요에 따라 추가로 지원할 예정이며, 주민대피소에 전자제품을 공급하고 가정에는 무상점검 서비스도 준비했다. 임직원 봉사단과 의료진도 현장에 파견했다.



산불로 큰 피해를 입은 강원 속초 장천마을이 폐허로 남아 당시의 참혹함을 전해주고 있다.

SK그룹과 LG그룹도 나란히 성금 10억원을 마련했다. 원활한 통신을 위해 SK텔레콤은 복구현장용 LTE 무전기를, LG유플러스는 이동기지국 설치를 지원했다.

삼성그룹과 마찬가지로 물품 지원도 병행한다. SK는 주요 대피소에 비상식품과 담요, 전력케이블을 제공했다. LG 계열사인 생활건강은 이재민들을 위한 생필품을 전달했다. 그밖에 계열사들도 필요에 따라 지원을 늘린

다는 계획, 회사 차원 봉사자들도 대규모로 파견한 상태다.

현대자동차그룹 역시 10억원 성금과 함께 생필품 및 구호 물품 지원을 시작했다. 도시형 세탁구호차량 3대를 피해지역에 투입해 터전을 잃은 주민들을 위로한다. 이달 말까지 차량 무상점검 및 수리비 50% 할인, 렌터카 사용료 10일간 50% 지원도 준비했다.

현대중공업그룹도 계열사별로 성금 1억원과 구호 물품 지원에 동참했다.

현대오일뱅크 1% 나눔 재단이 성금을 마련했고, 현대중공업과 현대건설기계 등에서는 굴삭기와 휠로더 등 복구에 필요한 장비를 준비했다.

롯데그룹도 10억원을 단숨에 출연했다. 지난해부터 매년 조성해온 재해 긴급구호자금 6억원에 4억원을 추가했다. 대피소용 칸막이텐트와 담요 등을 담은 생필품 구호키트도 400세트와 식료품 2000인분을 즉시 보냈다.

/김재용 기자 juk@



산불로 큰 피해를 입은 강원 고성군 토성면 용촌리의 소가 화상을 입은 채 가쁜 숨을 내쉬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 중구 태평로 한국은행. /김희주 기자

한은, 산불피해 중소기업 금융중개지원대출 지원

한국은행은 금융중개지원대출을 통해 강원지역 산불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을 지원하기로 했다고 7일 밝혔다.

한은은 금융중개지원대출 한도유보분 중 100억원, 금융기관 대출취급액 기준 400억원을 산불 피해지역을 관할하는 강릉본부에 긴급 배정할 예정이다.

지금 지원 대상은 이번 산불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이다. 숙박업, 음식점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도 포함한다. 지방자치단체 또는 읍면동사무소로부터 피해 사실 확인서를 발급받으면 된다. 지원 금액은 금융기관 대출취급액의 25%다.

한은 관계자는 “산불 피해상황, 대상 중소기업의 대출수요 등을 점검해 필요 시 추가 지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희주 기자 hj89@